

인사의 말씀

안동교회 여전도회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을 축하합니다. 오랜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노력하신 결과 이렇게 값진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, 그 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. 수고하신 역대 여전도 회장들과 임원들, 편찬위원들과 집필을 맡아주신 류금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
안동교회의 역사는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. 한국교회의 역사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적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이미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. 그 한국교회 역사의 중심에 안동교회의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. 안동교회 여성들은 지식과 리더십을 가졌을 뿐 아니라, 뿐리 깊은 믿음의 품위를 가졌습니다. 조선 사대부의 전통적 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민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믿음과 삶으로써 유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.



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의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염려스런 소식을 듣고 있지만, 우리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.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자신과 역사를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숨 고르기를 하며 우리의 뿌리와 믿음의 본질을 찾는다면,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찾아야 할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,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삼고,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조들, 믿음의 여성들입니다. 그 시대로 돌아가 그들에게서 듣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,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찾게 될 것이며,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의 일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여성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이
옮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.

2015년 9월
안동교회 담임목사
황영태